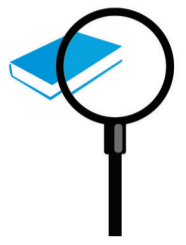


# 식민지·전쟁 비극 속 슬프도록 찬란했던 예술가들의 삶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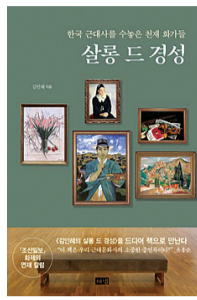
## 살롱 드 경성

김인혜 지음

박완서의 장편소설 '나무'가 박수근 화가의 삶에서 비롯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사연인즉슨 이렇다. 1965년 5월 박수근이 작고했다. 그 해 10월 유작전이 열렸는데, 당시 박완서는 전시가 열린다는 기사를 접하고 전시장을 찾았다. 박완서는 작품 앞에서 박차오르는 감동을 받았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화가의 삶을 소설로 쓰고 싶다는 열망을 느꼈다.

그렇게 박수근과의 인연을 소재로 '나무'를 썼고, 1970년 '여성동아' 현상 공모에 당선됐다. '나무'는 문학과 미술의 만남이 이뤄낸 의미있는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의 미술은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아시아 최대 아트페어 프리즈어가 서울에서 열려 문전성시를 이루고 김환기 등 한국의 화가 작품이 100억이 넘는 가격에 낙찰되기도 한다.



한국의 미술이 지금처럼 급성장하게 된 것은 불과 100여 년 안팎이었다. 세계의 변방에서 주목을 받기까지 지난한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이면을 들춰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도 예술혼을 불살랐던 이들이 있었다.

식민지 암흑기와 전쟁의 비극 속에서 피폐한 삶을 견뎌내며 예술을 향한 열정을 꽃피웠던 이들을 조명하는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미술사가인 김인혜 전 국립현대미술관 근대미술팀장이 펴낸 '살롱 드 경성'은 한국 근대 미술가들의 유산을 조명한다.

저자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로 일하며 아시아 미술에 집중했으며, '아시아 큐비즘', '아시아 리얼리즘'과 같은 전시를 공동기획했다. 이번 책은 2021년부터 '조선일보'에 연재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칼럼을 수정, 보완했다.

저자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미술가 30여 명과 문인들의 우정, 사랑, 작품 세계를 맛깔스럽게 소개한다. 구본웅을 비롯해, 박수근, 이중섭, 김환기, 유영국, 나혜석, 이쾌대, 이인성, 이성자, 장욱진, 권진규, 문신 등 주요 작가들의 이야기가 기본 모티브다. 이들은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전쟁과 분단으로 이어지는 가혹한 시대를 통과하며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했다.

먼저 근대기 화가와 문인들이 우정을 매개로 서로의 예술세계를 성장시켜 나간 과정이 펼쳐진다. 대표적인 인물이 곡파단이라고 놀림을 받았던 경성의 두 천재 이상과 구본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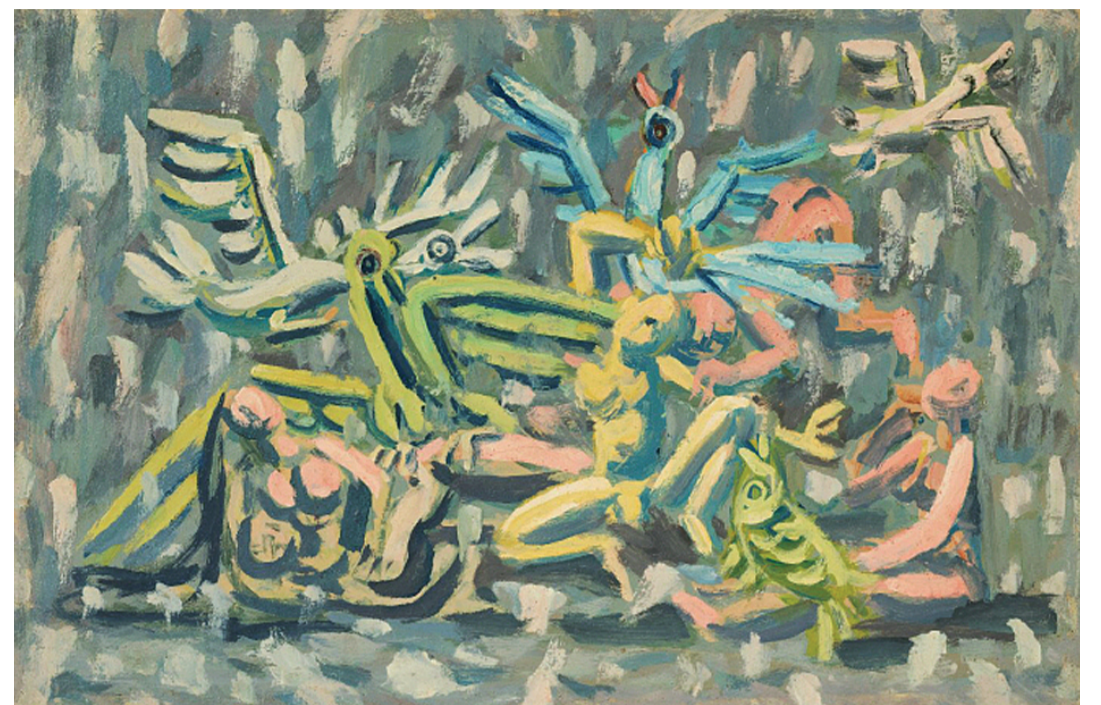
구본웅이 당대 재야 일본 그룹에서 이름을 알린 후 귀국했던 것이 1933년이었다. 이상이 도쿄로 떠났던 1936년까지 두 천재는 거의 붙어 다녔다 한다.

"답수룩한 머리와 창백한 얼굴에 슬한 수염이 뻗은 이상'과 '짙푸른 데다가 땅에 끌리는 인베네스를 걸친 구본웅'이 함께 거리를 거닐면 곡파단이 온 줄 알고 어린아이들이 그 뒤를 졸졸 따랐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저자는 화가의 오늘이 있기까지 예술적 동지이자 후원자였던 아내의 이야기도 풀어낸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의 마지막 구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날자꾸나 이상, 황소 그림 이중섭, 역사는 흐른다" 노랫속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근대화가 바로 이중섭이다.

이중섭이 그린 많은 그림에 부인 이남덕의 존재가 드러워져 있다. "곱슬곱슬한 앞머리를 말아 올린 여인의 모습은 모두 이남덕을 모델로" 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책에는 가혹한 세상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예술의 길을 걸었던 화가들의 이야기도 나온다. 격랑의 시대 걸작들을 남겨 '한국의 미켈란젤로'로 불리는 이쾌대는 최악의 여건 속에서도 불굴의 삶을 살았다. 포로수용소에 수용돼 있으면서도 그는 어린 화



제주도로 피란을 왔던 이중섭은 일본으로 떠난 부인과 아이들을 그리워했다. '가족과 첫눈' 국립현대미술관 이견희컬렉션.

가 지망생을 위해 대성 교본을 제작했다.

이밖에 한국 근대 조각의 거장 권진규, '노예처럼 일하고 신처럼 창조'했던 문신 등 집념의 예술가들의 이야기는 울림을 준다.

한편 저자는 "세파를 견디며 철저한 고독 속에서

지켜낸 예술가의 정직한 표현!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자신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각자의 삶과 경험에 비추어 자기 다른 나름의 '시사점'을 얻는 것이다"고 말한다.

〈해남·2만1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자전거 바퀴

양수덕 지음

"한 사람이 가고 남은 한 사람 저녁의 흰 가지에 걸려 있다. 피보다 진한 영혼으로 맺은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서 달빛 총만 하다. 둘의 영혼이 자전거의 바퀴라하면... 벗은 영혼에게 웃을 입혀주려니 시가 부스럭거렸다."

'시인의 말'에서 울림과 애달픔이 느껴진다. "피보다 진한 영혼으로 맺은 관계"는 부모와 자식, 또는 부부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 2009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한 양수덕 시인이 일곱 번째 시집 '자전거 바퀴'를 펴냈다. 지금까지 시집 '신발 신은 물고기', '가벼운 집', '우리 동물원', '엄마' 등의 시집과 산문집 '나는 빈둥거리고 싶다' 등을 발간했다.

이번 시집에 수록된 60여 편의 시들은 기억을 모티브로 한 작품들이 다수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어머니를 상실한 아픔과 연계된다. 신상조 문학평론가에 따르면 이번 시집은 지난 2020년 출간한 시집 '엄마'를 다시 읽는 느낌을 환기한다.

"엄마의 한복을 매만지고 들여다보다가 어떡하든 살려보려 머리를 짜냈다// 풀려 있는 웃고름을 헤치고 그 안에 내 어깨와 다리를 집어넣었다/ 집어보려 해도 새는 물처럼 빠져나가는 엄마의 육신// 갠 날과 흐리고 비 오는 날의/ 기록들/ 육신 벗어도 마르지 않는 엄마가 소용돌이쳤다..."

위 시 '유품2-한복'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상실의 먹먹함을 전해준다. 어떻게 해서든 '한복을 살려보려' 애쓰는 화자의 모습은 육신은 떠나보냈어도 떠나보낼 수 없는 엄마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듯하다.

신상조 평론가는 "이번 시집은 시인의 기억과 어머니의 삶과의 상호작용을 개인적이고 고유한 역사로서 진열하는 시공간으로서의 상징체에 가깝다"고 평한다.

〈상상인·1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그리스 로마 신화 신박한 정리

박영규 지음

'바다의 신' 포세이돈,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 '전쟁의 신' 아레스,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들의 왕' 제우스... 익히 들어왔던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신들의 이름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고대 그리스인이 만들어낸 신화와 전설이다. 오래된 신화이지만 그리스의 신들은 여전히 현대인들에게도 친숙한 이름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하지 못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신화 속에 등장하는 너무 많은 이야기와 등장인물 때문이다.

베스트셀러 역사 저술가 박영규가 펴낸 '그리스 로마 신화 신박한 정리'는 이같은 인식을 과감히 깨트린다. 신화의 80%는 제우스의 형제자매와 여인들, 여인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 이야기이며 따라서 제우스의 가계만 파악하면 신화는 전혀 난해하지 않다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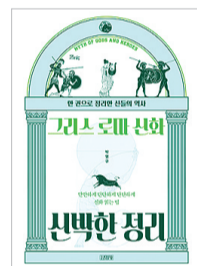
"그리스 로마 신화는 암투와 패륜, 욕망과 폭력으로 얼룩진 제우스와 그 가족 및 후손들의 행위를 신화와 문학의 이름으로 미화한 우상화 작업의 결정체다."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서양 문화에서 차지하는 무시하지 못할 비중 때문'이라고 말한다.

책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책 제목처럼 '신선하고 박식하게' 정리해 300쪽 분량으로 담았다.

1장에서는 역사 인물 제우스와 그의 가족들이 신격화 되는 과정을, 2-4장에서는 제우스와 가족들에게 얽힌 신화를 다룬다. 5장에서는 제우스 후손이 이룬 그리스 3대 왕가를 소개한다. 6장은 '인간을 창조한 신' 프로메테우스의 후손인 이아손 이야기로 시작하고 7장은 트로이 전쟁과 트로이의 몰락 이야기가 전개된다. 〈김영사·1만88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 완전한 연주

케니 워너 지음·이혜주 역음

히고 겸은 계단이 가득한 피아노 곡을 연주하는 것은, 수천 개 계단을 뚫어놓지 않는 등정과 같다. 서정적이고 조용한 곡에서는 음이탈이 부각되며, 현란한 기교의 곡에서도 음감 좋은 관객들은 금방 알아차리니 연주자들은 정상에 오르기까지 진땀이다.

계다가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원곡 흐름이 파다하게 알려진 요즘, 리스너들은 '들었던 것'과 '듣고 있는 것'을 비교하기도 해 연주자 입장에서는 곤혹스럽다.

음반을 30개 이상 발매해 수많은 어워드를 수상했으며 버클 리움대 교수인 케니 워너가 '완전한 연주'를 펴냈다. 세계적 피아니스트로 정평이 났음에도 늘 '연주 불안'을 겪었던 그가 속마음을 고백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한 연주'로 나아가는 방법을 코칭하는 내용이다.

책은 어떠한 분야에서든 진정한 숙달을 위해서라면 마음 연습을 곁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힘들지 않고 음악을 훈련하는 방법론으로 4단계 훈련법을 제시한다. 또 '명상'과 '확언', '형식 확장'이나 '공간 연결'과 같은 통념과 다른 독창적 훈련 방법들도 제안한다.

"자아를 내려놓고 내면의 연결을 탄탄히 구축하면 연주는 내면의 이야기를 받아쓰기하는 것과 다를 없다" 음악을 연습하며 영적 세계와 연주가 맞닿게 되면 기계적 숙달을 넘어서는 영역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완벽한 연주는 마음 훈련을 통한 일종의 마인드 트레이닝과도 같은데, 단순히 한 번 연습할 때마다 포도송이를 썰질해 한 송이를 가득 채우는 통상적 연습법과 거리가 멀다.

저자는 내면 훈련과 관점의 전환으로 일정한 성취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는다. 그러면서 비단 연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고, 어느 분야에서든 더 나은 수준의 자신을 마주하고 싶은 이들에게 삶의 지침을 준다. 〈현역출판·2만3000원〉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